

홍준표·이철우 정치놀음

막내린 대구경북행정통합...

관련기사 2·3면



2025

APEC정상회의
경주유치

잘못 끼워진 첫 단추 소리 요란한 TK통합 100일천하 끝내려고 550만 시도민 우뚝... 상처·갈등만 남겼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이 100일 천하로 막내렸다. 홍준표 대구시장 한반도 제2도시, 이철우 경북지사 대한민국의 새 판을 짜는 출발점이라는 거창한 구호를 내걸었지만 결과는 사실상 백지화다. 1995년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광역자치단체 간 첫 통합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결국 대구시와 경북도간 행정통합 논의는 모래성이었다. 시군 권한과 청사라는 뒷에 걸려 치유할 수 없는 상처만 남긴채 파국을 맞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7일 대구·경북 통합논의 무산을 공식 선언했다.

대구경북통합號 출항 100일만에 침몰...

홍준표 대구시장 무산 선언 “시·도민께 죄송”...고개숙여 불과 석달여 만에 분열·갈등 조장·응어리 남기고 ‘물거품’ 이철우 경북지사, “행정통합 끈 놓지 않겠다” 입장 밝혀



한반도 제2도시라는 깃발을 걸고 출항한 대구경북통합號가 침몰했다. 대구경북통합號 출항 100일만이다. 망망대해를 떠다니다 시군 권한과 청사문제라는 거대한 암초를 만나 차가운 바다속으로 가라앉았다.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 소멸에 대응, 한반도 제2의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불과 석달여 만에 분열과 갈등만 조장한채 물거품이 됐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5월 통합을 제안하고 이 지사가 맞장구를 치면서 탄력이 붙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 지역의 조속한 행정통합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대구시가 되면 연방정부에 준하는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그야말로 급물살을 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재도약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행정통합은 완전자치권을 위해 중앙권한 가져오는게 가장 큰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구경북이 다 합의되고 있는데 청사 문제 때문에 행정통합이 안 되면 후손들에게 죄 짓는 것이다.

청사 때문에 행정통합이 장기적 미제과제로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홍 시장은 경북도가 28일까지(대구시가 제시한) 최종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통합은 현실적으로 장기 과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경북도가 28일까지 합의할 경우 오는 30일(합의서)에 서명을 하고 무산시에는 장기과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이철우 경북지사는 시군의 권한과 청사 문제를 9월까지 결론 내라고 대구시에 제안했다.

이 지사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에서 통합의 원칙으로 “중앙정부 권한을 받아와서 광역정부와

대구·경북 행정 통합 시 경제 규모 1 인구 2 면적 3 GRDP 4 지방세입



*GRDP는 지역내총생산. 2022년 기준, 인구는 올 2월 기준. 자료=통계청

기초정부 모두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시군이 특색 있게 성장해야 다양성이 확보되고 진정한 지방시대로 간다”며 “시군 권한을 줄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통합 무산 선언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7일 대구경북통합 논의의 무산을 공식 선언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오늘 경북도의회가 대구시장 성도장이 된 것은 유감이다. 최종 시한이 내일(28일)까지이지만 도의회 동의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적었다. 홍 시장은 “그간 통합을 지지해 주신 시·도민들에게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대구경북행정통합 협의는 그야말로 ‘한치 양보없는 대치’를 벌여왔다.

홍 시장은 “더 이상 통합논의는 장기과제로 돌리고 우리는 대구혁신 100에만 집중하는 게 대구경북의 갈등을 수습하는 방안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간 대구·경북 통합을 지지해 주신 시·도민들에게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홍 시장은 “지난 3년간 끌어오던 지방행정 개혁이 생각이 서로 달라 무산된 것은 참 아쉽다”고도 했다.

앞서 홍 시장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오는 28일까지 대구시가 제시한 통합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고, 이 지사는 현재 쟁점인 시·군 권한과 청사 문제를 9월 말까지 결론 내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날 열린 경북도의회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홍 시장에 대한 비판성 발언이 나오고 통합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라 나오면서 홍 시장이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두고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는 지난 14일 통합자치단체를 ‘대구경북특별시’로 명명한 자체 통합특별법안을 공개했다. 양측이 통합안의 90% 이상을 합의했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경북 시·군의 권한 축소와 ‘경북 권역 내 청사’ 문제다.

양 지역의 행정통합은 2019년에도 추진됐다가 공감대 형성 부족 등으로 2021년 중단된 바 있다.

이철우 “여전히 중단없이 진행”

이철우 경북지사는 홍 시장의 발언에도 행정통합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도는 이 지사 명의의 입장문을 내 “행정통합은 다양한 분야가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로, 진행 과정에 난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난관이 있더라도 미래세대를 위해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저출생 등 우리나라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국가대개조 사업이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벗어나 다극체제를 만들어 지방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구경북이 앞장서서 행정통합을 실현해야 한다.

행정통합은 다양한 분야가 서로 얽혀 있는 매우 복잡한 문제로 진행 과정에 난관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합의와 조정의 중

요하다.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보다 더 큰 난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서로 협의하며 조정하는 가운데 난관을 극복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대구·경북 통합의 길을 열어가지고 했다.

그동안 경북도는 민간과 행정이 함께하는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행정통합의 추진과 실행을 위해 기존 실무추진단을 민간통합 협력추진체로 확대 개편한 ‘행정통합 민간합동추진단’을 구성했다.

경북도 행정통합 민간합동추진단은 행정통합추진단, 통합자문위원회, 통합연구지원단의 3대 조직구성을 바탕으로 통합 관련 업무와 시·도민 공감대 형성 등 활동을 맡았다.

이철우 지사는 “행정통합은 시·도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국가지방행정체제의 근본 틀을 바꾸는 크고 어려운 역사적 과제다. 도민 한분의 목소리라도 더 듣고 통합의 내용과 통합 이후의 새로운 발전구상을 면밀히 준비하고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이형식 도의원, 현재의 행정통합 반대

경북도의회 이훈우 박규탁, 김대진 대변인은 28일 도의회 기자회견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있어 쟁점들은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거쳐 도민들이 원하는 합리적인 통합방안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북도의회 이훈우박규탁, 김대진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경북도의회 통합 논의 시작 후 집행부의 의견과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청취해오고 있다”며 “한결같이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북도의회는 홍준표 시장이 최근 갑작스러운 기자회견과 페이스북 등 SNS 정치로 일방적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무산 발표로 오히려 시·도민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북도의회는 통합청사와 관할구역 문제, 기초자치체 지치권 약화주민투표 등이 현재 대구와 경북이 합의되지 않은 부분인데 이 역시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경북도의회 대변인은 “행정통합이라는 큰 야망을 광역단체장 한명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폐기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인 ‘절차와 협치’를 무시하는 것이다”며 “행정통합의 과정과 진행은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27일 열린 제349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일수 도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시도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순식간에 후딱 해치워 버릴 사안 아니냐”고 말했다.

이형식 도의원은 한마디 했다.

그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막고 인구소멸에 직면한 지방을 살리기 위해 대승적 차원의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도민과 도의회의 의견수렴 없이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짧은 시간 안에 속도전 하듯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행정통합에는 반대”라며 입장을 밝혔다.

연일 대구시가 경북도와 합의되지 않은 청사, 시군 자치권 축소, 주민투표 및 공론화위원회, 28일로 못 박은 합의안 통합 시점 등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등 경북과 대구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철우 도지사의 명확한 입장 과 대응책을 촉구했다.

이 도의원은 “도민의견 수렴을 통해 통합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투표를 실시, 도민의 의견이 통합과정에 주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행정통합이후 발생할 갈등 요소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통합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도의원은 경북도가 제시한 특별법안 272개 조문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그는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은 약 80건으로 통합 단체장 권한이 커지는 반면, 지방의회 관련 조문은 단 3개뿐”이라며, 지방의회 권한 축소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의회와 집행부 간 상호 견제기능이 균형을 이루려면 특별법안에 △의회의 자율적 예산안 편성권 △의회사무기구 정원 조직권에 대한 독립적 권한 △실질적인 인사청문회 실시 등을 명시하는 등 조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회와 집행부 간 건설적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감사기능의 의회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현재의 법률안에 특별시장 소속으로 되어 있는 감사위원회의 의회 이관을 촉구했다.

김성용 기자

살균유사의
도시교장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

대구광역시 군위군

**파워풀 대구와 함께
미래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 황오동에 백미 기부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 봉사활동 총괄 이규섭 사무사는 26일 황오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백미 10kg 30포(100만 원 상당)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아사·모는 명절과 연말연시 등 수시

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쌀과 생필품 등 후원물품을 전달하며,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 밥퍼 봉사활동, 환경정비 활동 등을 통해 18년째 경주의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온 단체다.

특히, 봉사활동을 총괄하고 있는 이규섭 사무사는 2024년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무료 세무상담, 납세자 권익보호, 성실납세 조성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상, 지역 내 본보기가 되고 있다.

국가지질공원, 유네스코 지정 위해 中츠저우시와 협력

중국 츠저우 대표단 주상철리 찾아 "세계지질공원 지정...행정력 집중" 내년 상반기 유네스코 승인 남겨

'경주 국가지질공원'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경주시가 중국 츠저우시와 협력에 나섰다.

경주시는 중국 츠저우시 공무원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경주를 방문해 양 도시 간 지질공원 교류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28일 밝혔다.

츠저우시는 중국 안후이(安徽)성 남서쪽에 위치한 도시로, 중국 불교의 4대 명산 중 하나인 구화산(九華山)이 있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지난 27일 경주를 찾은 츠저우시 대표단은 동남산 상사바위, 탐곡 마애조상군, 불국 마애불, 골굴암, 문무대왕릉, 양남 주상절리 등을 둘러본 후 경주 국가지질공원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날 츠저우시 대표단은 구화산 세계지질공원(2009년 지정)을 소개하고, 경주시는 경북 동해안국가 지질공원의 현황을 소개하며 양 도시 간 지질공원의 상생협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교류의 장을 만들었다.

이번 방문은 양 도시의 지질유산을 공유하

고 협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경주 국가지질공원'은 경주 남산 화강암, 골굴암, 문무대왕릉, 양남 주상절리 등 4곳이 지난 2017년 환경부 인증을 받았으며, 동해안을 따라 울진, 영덕, 포항, 경주 4개 시·군의 지질명소 29곳이 '경북 동해안국가지질공원'에 속해 있다.

이 공원의 총면적은 2629.66km²로 국내 최대 규모다.

앞서 경북도와 4개 시·군은 지난해 11월 신청서를 제출했고, 올해 4월 서면심사, 지난달 현장 실사를 마쳤으며, 다음달 예비결과 발표를 거쳐 내년 상반기 유네스코 정기 총회에 최종 승인을 남겨 두고 있다.

공원성 구화산 풍경구 관리위원회 당공위 서기는 "세계지질공원 지정으로 경주를 포함한 경북 동해안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자연유산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주시 송호준 부시장은 "경주의 국가지질공원은 지질학적으로 뛰어난 명소와 문화유산이 공존하는 지질 유산의 보고"라며, "자매 도시인 츠저우시 대표단과 경북동해안국가지질공원의 지속적인 상호 방문 등 교류를 통해 향후 문화교류의 장 마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년유입 위한 '청년농촌보급자리 사업' 나선다

농식품부 주관 사업 추진 단독주택 30호 미만 조성

경주시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청년농촌보급자리조성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 사업은 읍·면지역 귀농·귀촌인, 주민 중 40세 미만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거 부담을 완화해 농촌지역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위기,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며 청년층의 교육, 문화, 여가 등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경주시는 외동읍 입실리 65번지 일원에 단독 주택형태의 공공임대주택 30호 미만과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청년농촌보급자리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지난 8일 외동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사업설명, 홍보 및 주민의견 청취의 장을 마련했다.

공모 사업 추진을 위해 1회 추경예산으로 예비계획수립용역비와 토지매입비를 미리 확보

했다. 이번 예비계획 수립으로 내년 1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 신청을 할 예정이며, 공모에 선정될 경우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주남영 경주시장은 "외동읍은 농공복합지역으로서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군과 청년층의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나, 귀농·귀촌청년층을 비롯한 청년층에 대한 정주여건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경주시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안강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프로그램 진행

문화유산해설사 과정 교육

경주 안강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2일부터 20일까지 6회기에 걸쳐 '경주 사랑 청소년 문화유산해설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두빛나래 청소년들에게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고 우리 고장의 자랑스러운 세계문화유산인 양동마을, 육산서원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마련됐다. 프로그램에 참석한 6명의 청소년들은 세계문화유산을 직접 소개하는 시간을 통해 숨겨진 끼와 재능을 과감하게 자기성장향상의 기회가 됐다. 또 우리 고장의 역사와 숨은 이야기 발굴을 통해 최상의 집중력과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향후 안강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안강지역 특성을 살린 실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문화유산해설사 때면 양성할 예정이다.

배경혜 아동청소년과장은 "우리 청소년들이 문화유산해설사라는 타이틀에 맞게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해 지역사회에 슬기로운 영향력을 제공하길 바란다"라며 "시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리더십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강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청소년의 건강하고 후생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청소년 활동, 교육,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총 30개 식당 선발 예정

경주시가 일반·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점 셀프바냉장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지자체 구입에 따른 식당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이어 두 번째 추진된다.

지난해는 경북도 식품진흥기금 공모사업에 경주시가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올해는 시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업이 시행된다.



올해는 총 30개 식당을 선발할 예정으로, 선정된 식당은 영업장 환경에 맞는 크기의 반찬냉장고 1대를 지원받게 된다. 자부담은 없다.

총 사업비는 3000만원이 배정됐다. 반찬냉장고 지원을 원하는 식당은 다음 달 1일까지 경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서 제출하면 된다.

제출 방법은 경주시청 식품위생산업과를 방문하거나, 신청인 서명과 함께 신청서를 스캔해 이메일(jjoajjoa@korea.kr)로 보내면 된다.

서류 평가와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중 최종 결정되며, 지역 내 소규모 음식점 및 영업기간이 오래된 업소가 우선 선정된다.

건천읍 주민자치 운영 보고회

건천읍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3일 2024년 상반기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성과보고회를 건천읍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에 대한 심도 있는 결과 평가와 이를

기반으로 한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방안 개선,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불편 사항 및 건천읍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 방향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주민자치위원회의 발전을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윤용찬 기자/사진=경주시 제공

농업

지

농업

지가 있다면

바로 가입해야 할

금이 있습니다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 / 영농경력 5년 이상 (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 (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

농림축산식품부 **ki** 한국농어촌공사 **fb** 농지은행·농지연금

"나부터 청령하GO! 우리 함께 청령하GO! 모두 청령하GO!"

ki 한국농어촌공사 **fb** 성주지사

영양 석보면지역사회보장협, 구호품 전달

영양군 석보면지역사회보장협은 28일 너더위를 대비해 취약계층 독거노인 8가구에 구호 물품 세트를 전달하였다. 석보면지역사회보장협은 지속되는 폭

염으로 안전사고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독거노인 8가구를 대상으로 구호 물품 세트를 전달하였다. 구호 물품 세트는 선풍기와 이불 및 식품 등 총 5종의 물품으로 꾸렸다.

물품을 전달받은 최OO(남, 65세)은 "올해 여름은 유독 더위가 길어 힘이 들었는데, 석보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신 물품 덕에 남은 여름을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며 감사를 표하였다. 권윤동 기자



포항사랑상품권 추석맞이 10% 특별할인판매

지류형 100억원 등 총 350억원 모바일 상품권 보유 한도 70만원 매일 상시 7% 할인 판매 진행

포항시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달 3일부터 포항사랑상품권 350억 원을 10% 특별할인 판매한다. 이번 특별할인 행사는 카드형(포항사랑카드)·모바일 상품권 250억 원, 지류형(종이) 상품

권 100억 원 등 총 350억 원을 발행해 판매하며 예산 소진 시 자동 종료된다. 상품권 개인 할인 구매 한도는 포항사랑카드와 모바일 상품권, 지류형 상품권을 통합해 월 40만 원까지며, 지류형 상품권은 최대 20만 원까지만 구매할 수 있다. 포항사랑카드와 모바일 상품권의 보유 한도는 70만 원이며, 충전하기 전에 잔액을 모바일 앱(IM#)에서 미리 확인하면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다. 포항사랑카드와 모바일 상품권은 모바일 앱

(IM#)에서 3일 오전 0시 15분부터, 104개소 판매대행점과 아이엠뱅크(구대구은행) ATM기(49개소), 셀프창구 등에서는 영업시간에 충전할 수 있다. 지류형 상품권은 164개소 판매대행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다. 판매대행 금융기관은 시 포항사랑상품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음식점,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의 2만 1천여 개의 가맹점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10% 할인받아 충전한 포항사랑카드를 작한

가격업소로 지정된 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경우 5%를 추가 할인 받을 수 있어 최대 15%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시는 350억 원의 10% 특별할인 판매가 종료되면 이어서 포항사랑카드와 모바일 상품권 50억 원을 발행해 9월 7% 할인판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7% 할인은 지류형은 판매하지 않으며, 판매 일자에는 포항시 모바일 앱(IM#)과 포항시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사랑상품권이 추석

명절에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보탬이 되고 시민들의 가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포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다양한 포항사랑상품권 활성화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올해 설 명절 420억 원, 포항국제불빛축제 90억 원, 포항사랑상품권 누적 발행액 2조 원 돌파 기념 100억 원 등 포항사랑상품권 총 610억 원을 10% 특별할인 판매하고, 매일 상시 7% 할인 판매를 진행해 소상공인에게 힘을 보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영덕,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 행복기동대 교육

마을 이장, 1마을 1지킴이 활동 고독사 위험군 조기 발굴 기대 영덕군은 김광열 영덕군수, 행복기동대 150여 명, 영덕복지재단 관계자, 9개 읍·면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7일 영덕무형문화재전수관에서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 행복기동대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행복기동대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위기가구를 조기 발굴·안내하기 위해 조직된 인적 안전망으로, 관내 204개 마

을의 이장들이 행복기동대를 결성해 1마을 1지킴이로 활동하게 된다. 이날 교육은 △행복기동대 읍·면 대표 위촉장 수여 △행복기동대 퍼포먼스·단체 기념 촬영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의 이해 △행복기동대의 역할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급격한 사회 변화로 1인 가구가 급증하고 고립 가구가 증가하면서 고독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고독사는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에 행복기동대와 함께 민·관의 긴

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덕군은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복기동대, 영덕복지재단 등 민관 협력으로 심층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번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안부확인 △생활개선 지원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사후관리 등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위험군을 집중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방침이다. 조여은 기자

글로벌대학30 사업 '한동대학교' 선정

5년간 국비 최대 1천억원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인재 양성 기대 포항시는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모토로 교육부가 추진한 글로벌대학30 사업에 한동대학교가 최종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한동대는 향후 5년간 최대 1천억원의 국비 지원을 받으며,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글로벌대학30은 정부가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대학 내·외부의 벽을 허물고 지역과 산업의 파트너십을 토대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선정해 향후 5년간 국비 최대 1천억 원을 집중 지원한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인적 인재를 양성하는 한동대는 이번 본지정 평가에서 △미래대학 HI(전인적) 교육모델 실현을 위한 'HI College' △글로벌 협력 성과를 확산하는 'HI Alliance' △HI 지식산 혁신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HI Accelerator' 등의 핵심 추진 과제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동대는 그동안 포항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 왔으며, 지역 청년들의 역량 강화와 정착을 위해 전인교육과 글로벌 리더십 교육을 강조해왔다. 이번 글로벌대학 선정으로 한동대는 국제적 수준의 교육 및 연구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긴밀히 연계된 혁신모델을 창출해 포

항시와 함께 한동대 지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혁신 허브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인재 양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동대의 이번 본지정 선정은 포항시를 비롯한 경상북도, 울진·영덕·울릉군, 지역대학, 산업체 등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다. 지난해부터 한동대의 글로벌대학 지정을 위해 포항시 관련 부서로 구성된 '실행계획서 작성 TF팀'을 운영해 왔으며, 지자체, 기관, 지역대학, 산업체로 결성된 민·관·산·학 협력추진단을 구성해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시는 한동대와 함께 지역의 미래 혁신을 주도하는 데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포스텍에 이어 올해 한동대까지 지역에 소재한 두 곳의 4년제 대학이 모두 글로벌대학에 지정되면서, 지역이 갖춘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포항이 주도하는 지방시대의 선도모델을 제시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울진읍 지역사회보장협, 반찬 전달로 이웃 사랑

취약계층 103가구 개별 방문 울진읍 울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6일 관내 복지사각지대 및 취약계층 103가구를 대상으로 '마을 담은 김치반찬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울진읍 새마을부녀회에서 매월 반찬을 직접 준비하고 협의체 소속 단체 회원들이 대상 가구에 개별 방문해 김치반찬을 전달하는 사업으로 한울원자력본부에서 지원받아 시행

하고 있다. 이번 달에는 무더운 여름철에 간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짜장소스, 중면, 깻잎장아찌, 요거트 등을 넉넉하게 준비해 각 가정에 직접 전달하면서 건강히 잘 지내는지 안부 확인을 하였다. 김종경 민간위원장은 "아직 무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입맛을 잃어서 건강을 해칠까 염려돼 마을 담은 김치반찬지원을 통해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윤미경 공동위원장은 "늘 정성이 담긴 손길로 자원봉사 해주시는 협의체 소속 단체 회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잘 전달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이경수 기자

영덕 블루로드 해변 걷기 행사 진행

'달빛고래트레킹' 행사 사전 홍보 미션 완수자, 다양한 경품 지급 명품 해안 트레킹 코스로 알려진 영덕 블루로드 일대에서 오는 31일 '가자! 블루로드, GO 상대산&대진 해변' 걷기 행사가 개최된다. 이번 걷기 행사는 블루로드 지킴이 단체인 '가자! 블루로드'에서 주관하며, 영덕군 산림조합, 영해면 새마을금고, 대진해수욕장 운영위원회가 후원한다.

'가자! 블루로드'는 지역민 20여 명으로 구성된 주민 참여 봉사단체로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통해 영덕 블루로드 64km 전 구간을 모니터링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개선에 힘쓰고 있으며, 매월 블루로드 노르딕 워킹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영덕군이 이달 말 개최하는 '달빛고래트레킹' 행사의 사전 홍보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당일 오후 4시 대진해수욕장을 시작해 예죽목은 명품길, 상대산 관어대, 대진 해변 맨발 걷기로

이어서는 3.5km 약 2시간 코스로 진행된다. 행사 참여자 중 선착순 150명에게는 신발주머니와 생수가 배부되며, 미션 완수자에게는 영덕군의 특산 가공품과 먹거리 쿠폰, 생필품 등 다양한 경품도 주어진다. 이번 행사는 가족 단위 참가자의 경우 '가자! 블루로드' 사무국 담당자에게 연락해 사전 신청하면 되며, 개인 신청자는 당일 집결지인 대진해수욕장에서 현장 접수하면 된다. '가자! 블루로드' 손기섭 대표는 "상대산 관어대에서 내려다보는 천혜의 비경과 해변 맨발 걷기로 건강도 챙기고,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는 재미와 함께 경품도 얻는 1석 3조의 행사가 될 것"이라며 참여를 독려했다. 조여은 기자

명절 귀성객 대상 여객선 운임할인

울릉군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울릉도와 육지를 잇는 여객선을 운영하는 다섯 선사사의 협조를 받아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울릉군에 6촌이 내 친인척을 둔 자 및 등록기준지가 울릉군으로 돼 있는 자)을 대상으로 여객선 운임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여객선 운임 할인기간은 추석 당일인 9월 17일을 전후해 9월 11~20일까지 진행되며,

할인신청 접수는 8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울릉군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진행된다. 할인율은 기본운임의 30%를 할인하며, 대저페리의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는 입도시 주민 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면 50%까지 할인을 지원한다. 울릉크루즈(주)의 뉴시디오픈호는 VIP실 및 2인실 제외 전 객실을 지원하며, ㈜H페리의 썬플라워 크루즈호의 경우 3등실에 한해 할인을 지원한다. 정윤환 기자

Opinion

신문 및 이 달 라 지 면 신 문 내 용 도 달 라 지 야 합 니 다 대구광역시 일 보 는 독 자 가 습 까 지 생 각 합 니 다



대구광역시일보 www.dgy.co.kr 등록번호(일간) 대구가 00016 dgynews@daum.net

대표 (053) 253-0000 FAX (053) 253-0041 대구시 중구 태평로288(2층)

발행인 김영속 편집인 김성웅 부사장 조여은 편집국장 김현석

지역번호 053 대표 257-0000 부사장 254-0400 편집국장 257-0200 경영지원 267-5000 광고국 267-0800 사회부 253-0060 정경부 253-0061 문체부 253-0065 지방부 253-0064 편집부 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칼럼

‘공짜 점심’의 유혹

임정덕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기보다 자식이 더 잘되기를 염원하고 기도하며 어떤 노력이나 희생도 마다않는다. 인류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원동력 중의 하나가 다음 세대를 위한 배려와 희생이다. 가장 단적인 예가 자식 교육이다.

한국이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고도성장을 단기간에 이룩해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것도 교육열에 힘입은 바 크다. 우리 부모들은 거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논밭과 소까지 팔아 가며 자식들을 위해 과감한 희생을 감내했다. 비단 교육이나 후세 양육뿐만이 아니다.

경제도 원리는 똑같다. 나라의 장래와 후대를 위해 현재의 어려움을 참거나 희생을 감수하는 노력이 바로 저축이요 자본 축적이다. 개인, 기업, 국가 등 경제 주체가 축적해 놓은 자본이 없거나 모자라면 어떻게든 돈을 융통해 하고자 하는 사업(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을 때 놓치지 않고 실현하는 지혜와 용기, 안목과 통찰력, 기획력과 추진력이 요긴하다. 그렇게 해서 자녀 교육에 성공한 부모들이 한국의 지난 세대 주역들이고, 나아가 세계 최빈국이었던 한국의 산업화를 이끈 지도자와 기업가 및 정책 당국이었다.

이런 정책이 세계 최초이거나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므로 그동안 시행된 사례를 분석하면 그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여기서는 세 나라만 간단히 살펴본다. 세계 최대 산유국의 하나인 베네수엘라는 전도유망한 나라였다. 그러나 1980년대에 닷친 제2차 석유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자국의 정유 기술 향상과 장래를 위한 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기회를 놓쳤다. 대통령으로 내리 4년 당선돼 14년간 장기 집권하다 암으로 사망한 우고 차베스는 외국 자본 소유의 석유기업 국유화와 더불어 모든 국민에게 마구 퍼주는 정책을 서슴지 않았다.

그의 뒤를 이은 지도자들마저 같은 포퓰리즘을 강행하는 바람에 베네수엘라는 오랫동안 천문학적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다 남미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로 전락했고, 많은 국민이 살기 위해 조국을 등져야 했다. 그 정반대 사례가 북유럽의 북국 노르웨이이다. 이 나라는 북해유전 발견으로 일약 산유국이 되면서 막대한 부가 계속 창출

되는 엄청난 행운이 찾아왔다. 이때 정부가 제안하고 국민이 지지한 정책은 이 ‘뜻밖의 부’를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나눠 주거나 당장 써 버리는 게 아니라 국부펀드를 만들어 장래에도 부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게 만들고 후손들이 그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이었다.

그 정책은 지금도 그대로 실천되고 있다. 다른 유럽 국가의 예로 스위스를 들 수 있다. 역시 부국인 이 나라는 사회복지제도의 일환으로 모든 성인에게 매월 약 300만 원(미성년자는 8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려는 시도가 여러 번 되풀이됐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대유행으로 스위스도 예외 없이 크고 작은 경제적 고통을 감수하며 견뎌야 했을 때에도 그랬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기본소득 지급안은 국민투표에서 70% 이상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포퓰리즘을 경계하는 스위스 국민의 현명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당한 대가 없이 받아먹는 행위가 반복되면 인간이나 동물이나 다음을 기대하기 마련이고, 공짜 공급이 계속되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이 쌓일 수밖에 없다. 처음에는 불편한 심정이나 장래를 고려하는 염려가 없지 않았지만 계속 반복된다 보면 당연한 권리로 여길 것이고, 공짜가 중단되거나 축소되면 참지 못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말 것이다. 현대 사회가 지향하는 복지형 국가라면 정부든, 사회든, 개인이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 돌보기를 주저해선 안 된다. 그러나 정치권이 앞장서서 공짜 점심을 바라는 풍조를 조장한다면, 국가와 사회는 몰락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 정권을 잡으려고 표만 되면 어떤 짓도 불사하는 불순한 정치 세력은 나라의 앞날은 아랑곳없고 당장의 표심만 쫓는다. 이렇게 선공후사(先公後私)가 아닌 선사후공을 택하면 나라꼴이 어찌 되겠는가!

성명서

대구시는 팔현습지를 국가습지로 지정하는 그 길에 적극 나서라!

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



산과 강의 생태계가 자연스레 연결되고 금호강의 원시 자연성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팔현습지는 19종에 이르는 법정보호종 야생동물의 ‘숨은 서식처’(Cryptic habitat)이자, 각종 야생동물의 집으로 반드시 보전되어야 할 핵심 생태 구역이다.

특히 강촌해살고 건너 좌우 2km에 이르는 구간은 산과 강의 생태계가 그야말로 자연스레 연결된 구간으로 금호강 대구 구간 42km에서 가장 핵심 생태구역으로 반드시 보전이 필요한 곳이다. 그런데 19종의 법정보호종 야생동물의 집 금호강 팔현습지에 환경부가 탐방 보도교를 건설하려 해 큰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환경부발 이같은 반환경 ‘삼집 공사’는 절대 안될 일이고, 하루속히 이곳을 국가습지로 지정해 누대로 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높다. 왜냐하면 금호강 팔현습지는 대구의 상징이자 대구의 큰 자랑거리이기 때문이다. 이곳을 다녀간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대구에 아직 이런 곳이 남아 있다니, 그것도 대구 도심 가까이 이런 곳이 남아 있다는 것은 기적으로 반드시 보전해야 한다” 할 정도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곳이다. 특히나 팔현습지 하천숲과 왕버들 군락지는 ‘원시 자연성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곳’으로 멸종위기종들의 ‘숨은 서식처’로서 기능을 하면서 수많은 생명들을 기르고 있는, 마치 어머니의 자궁과도 같은 곳이다. 이런 곳에 걸어서 5분, 자전거로 고작 1분의 시간을 단축하고서 170여명의 국민혈세를 투입해 각종 멸종위기종의 ‘숨은 서식처’에 해당하는 이곳으로 굳이 직선의 탐방로를 건설해 팔현습지 핵심 생태구역을 교란시킬 이유가 결코 없다는 것이다.

절대대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이같은 일을 환경부가 벌인다는 것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일로서 환경부발 삼집을 반드시 막아내고 팔현습지를 국가습지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인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주무 행정기관인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 대구시가 환경부에 국가습지로 등재할 것을 적극 제안하고, 그에 상응하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250만이 사는 거대도시 대구시도 다른 타 도시와 같이 국가가 보호하는 국가습지가 한둘은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첫 국가습지가 팔현습지가 되기를 많은 대구시민들이 염원하고 있다. 따라서 대구시가 적극 나서서 금호강 팔현습지를 국가습지로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실제로 8월말 현재까지 1천 명이 넘는 대구시민을 포함한 2천 명이 넘는 전국의 시민들이 팔현습지를 국가습지로 등재하길 촉구하는 서명에 사인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이들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절대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나의제언

연일 폭염에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위험하다



성주소방서 예방총괄담당 안주보

지난 26일 성주소재 비닐하우스와 농막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성주는 전국 참요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2023년 기준 성주소재 비닐하우스 화재는 최근 5년간 63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전체 화재의 11%를 차지하고 재산 피해는 223,187천원이 발생하였다. 화재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21건 34%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비닐하우스는 여러 동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가연성 소재로 만들어져 화재에 취약한 구조이며 조그마한 불씨라도 큰불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농막 등으로 사용되는 주거용 비닐하우스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사망률

(7%)로 전체 화재 사망률 대비 8.8배 높은 결과를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비닐하우스의 화재 위험성을 보면 열을 차단하기 위해 장시간 난방기구를 가동하고, 외부 공기 차단으로 내부 습도가 올라가 누전 발생 위험이 크다. 또한 농막 등 주거용으로 사용 시 냉·난방기 가동 및 문어발 멀티탭 사용으로 화재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대구. 쾌적하고 행복한 도시 살고 싶은 대구. 도전하는 청년, 활기찬 노후, 꿈을 키우는 아이, 행복한 가정. 내게 딱 맞는 인구정책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최고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신문을 만들겠습니다



바라만 봐도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만 봐도 탐나는 신문이 있습니다
 캄캄한세상 '새벽'을 여는 '첫' 신문
 독자들이 그렇게 원했던 신문이 바로
'대구광역시일보' 입니다.

광고·구독문의

053-253-0000